여의도에 연예인 법당을…

불자가수회 올 숙원사업 재원마련·부지물색등 분주

"노래가 좋다! 불교가 좋다!"며 모인 사람들. 바로 불자가수회 회원들이다. 이들 불자가수회 회원들이 '97년 전법의 해'를 맞아 연예인법당건립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각오로 음성포교사로서의 면모다지기에 나선다.

불자가수회 올해 최대 숙원사업은 연예인들의 주활동무대인 여의도 중심부에 불자연예인들을 위한 포교당을 마련하는 것.

회장 김흥국씨는 "여의도에 포교당을 마련하게 되면 불자가수 뿐만 아니라 탤런트, 개그맨, PD, 작가, 기자 등 많은 불자들이 시간날 때마다 들러서 스님의 법문도 듣고, 친목도 도모하는 등 불교포교의 극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포교당 건립기금 마련과 부지선정 등의 문제는 회원들의 노력으로 하나 하나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자가수들 스스로가 찬불가요를 개발, 각종 방송을 통해 울려퍼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김흥국씨와 이은하씨등 몇몇 불자가수회 회원들이 찬불가요 앨범제작을 기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어느해 보다 찬불가요 활성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중에 널리불려지는 인기있는 찬불가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올해에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노래로 히트곡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불자가수회 회원들 사이에서 충천해 있다.

그동안 각종 법회나 문화행사에서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온 불자가수회는 부처님 마을 자광원 양로원을 찾아 음성공양과 음식공양을 하는 등 봉사활동도 모범적으로 펼쳐왔다. 이처럼 노래를 통해 펼쳐온 신행과 봉사활동을 더욱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전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불자가수회의 올해 목표다. 또한 불자가수회는 매월 4째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하고 있는 수요일 정기법회와 음성공양도 더욱 충실을 기할 계획이다.

불자가수회의 회원들은 김흥국씨를 비롯 장미화, 한명숙, 진송남, 이은하 등 선배가수와 김혜연, 한혜진, 편승엽, 현당 등 요즘 한창 인기몰이에 열중인 가수 40여명. 선후배간의 돈독한 우애와 신심으로 엮어갈 이들의 97년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지심참회 하였습니다"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참회의 삶'을 살자

전북불교대 동계수련대회 현장

1080배·철야정진 50여명 마음 비워내기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 살아보자" 다짐

18일 오후 2시 전북불교대학 동계수련대회 참가자 50여명을 태운 버스가 〈반야심경〉 독경과 함께 전주를 출발하여 경쾌하게 도로를 가로 지른다. 화양동 계곡을 거쳐 괴산 다보수련원에 도착한 수련생들은 법당을 참배하고 눈덮인 앞산을 보며 참회정진의 굳은 의지를 다진다.

'참회하는 마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 동계수련회의 마음을 비워내기 위한 참회수련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날 오후 5시 입재식에서 강건기(전북대 철학과)교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잘못 살아왔고 좋지않았던 기운을 몰아내는 것이 참회수행법이다" 말하고 "이번 1박2일 참회수련을 통하여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살림을 살아보자"고 말했다. 어어진 '참회하는 마음'이라는 강의에서 강교수는 "불교의 참회는 사참에서 이참까지 완전해야한다"고 밝히고 "우리마음을 뇌란시키는 업보 따리를 다보사 부처님께 다맡기고 내려갈 수 있도록 내자신을 샅샅히 뒤져 참회눈물로 청정한 마음을 갖자"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 '참회하는 마음'을 주제로 열린 전북불교대 수련대회.

오후 9시 싸늘한 겨울기운이 도는 다보사 큰법당. 사참(事懺)의 실천행인 1080배 참회및 철야정진에 돌입한 불자들의 뜨거운 입김이 거세게 일며 세차게 내리치는 죽비소리와 함께 밤은 깊어간다.

"지심참회 합니다.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다음날 새벽. 본래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이참(理懺)정진에 돌입한 수련생들은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뒷산을 등산 한 뒤 참선에 들어갔다. 하나같이 본래 마음자리 찾기에 열중이다. 이렇게 20분이 흘러갔다.

이윽고 〈천수경〉독경 참회정근 후 월탄스님(용화사 주지)을 수계법사로 전체 동참대중의 수계식이 열렸다. 진한 향내음이 법당을 진동하고 연비가 진행되자 월탄스님이 대중에게 "지심참회 합니까"라고 묻는다. 그러자 수계불자들은 모두 하나되어 큰소리로 대답한다. "지심참회 하였습니다"

괴산=김원우 기자

천태종, 6부장·131개 사찰 주지 인사

종단운영 새 기틀 포석

총무 - 국성스님

교무 - 춘광스님

교육 - 도원스님

재무 - 문덕스님

사회 - 도재스님

규정 - 덕수스님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총본산 구인사 관음전에서 6부장및 1백31개 사찰주지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부장급 인사에는 총무부장 국성스님(전 교육부장) 교무부장 춘광스님(전 규정부장) 교육부장 도원스님(전 총무부장) 재무부장 문덕스님(전 사회부장) 사회부장 도재스님(전 재무부장) 규정부장 덕수스님(전 교무부장)이 임명됐다.

사찰주지 인사는 산하 1백46개 사찰중 관문사 운덕스님등 1백31개 사찰주지가 임명됐으며 현재 불사가 진행중이거나 여건이 안되는 부산 삼광사등 15개 사찰은 주지임명이 미뤄졌다.

이번 천태종 인사는 3대종정 도용스님이 처음갖는 정기인사(4년마다 실시)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번까지 형식적인 인사관행에 그쳐온 천태종이 4원장 6부장 국장 1백31개말사 주지인사를 단행, 종단운영의 새로운 모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21세기를 앞두고 추진중인 종립 금강대학 설립, 올 11월 관문사 낙성, 분당에 전통형식 가람창건, 복지관건립 등을 위한 총무원 분위기 일신과 총무의 효율성이란 대명제를 달성키 위한 새로운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천태종 총무원은 10년전부터 임기제가 폐지되면서 한부서에서 10-20여년간 장기소임을 맡아왔던게 관행이었다. 이로인해 안정성은 있었으나 종단의 모습이 고정화된 이미지를 띄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와관련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사회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도시포교를 촉진시키기위해 97년내 총무원연락소를 서울에 설치하여 종단업무의 일부분을 이관하여 수도권에서도 종단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며 사찰이나 포교당 건립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이런차원에서 종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효율화를 통한 발전에 박차를 가하자는데 이번 인사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종단협과의 관계개선과 더불어 종단 역점사업인 4년제 정규대학 인가를 서두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천태종은 19일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 전국 1백46개 말사에서 한달간 실시된 신도 동안거 해제식을 가졌다. 〈구인사=김원우 기자〉

한불여행사 국내·외 영업허가 취득

태고종 한불여행사는 최근 국내외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대주주에 이규범(태고원 이사장) 종운스님(한·스리랑카 불교교류회장)을 선임하는등 체제개편과 사업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한불여행사는 불교문화교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성지순례도 동남아 불교국가의 종단과 제휴하여 양국교류를 위한 합동기원법회 합동위령제및 불교문화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단행된 한불여행사 인사는 상임고문에 구산(국제불교문화원장) 인공스님(전 태고종 부원장)이, 사장에는 전문경영인 노회재(전 성진여행사 사장)씨가 영입됐다.

불교방송 노조 결성

불교방송노조가 지난 16일 결성됐다. 지난 22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노조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정식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불교방송노조는 1월중 정기총회를 열어 집행부를 꾸리고 창립법회등 앞으로의 추후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현재 불교방송노조원은 총 58명으로 가입대상자 가운데 65%가 참여하고 있다.

목탁소리

불교문화 경쟁력

이 은 자 〈취재2부 기자〉

현대사회에 있어 문화경쟁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의 수단이다. 다음 세기에는 우수한 문화를 소유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니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세계각국은 이제 자국의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부각시키고 알리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문화경쟁력 강화에 열중하고 있다.

이같은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듯 얼마전 한국관광공사가 '한국문화유산 관광상품화 방안'을 발표하고 97년을 관광한국의 기치를 드높이는 해로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현황과 관광적 가치파악을 통해 대표적 문화유산의 유형을 선정, 이를 적극적으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한국문화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묘안이라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관광상품화는 단순한 상업적 이익의 측면을 뛰어넘어 세계인에게 우리의 정신문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세계인이 이를 즐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해석, 발전시켜 우리의 문화경쟁력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종묘, 불국사 및 석굴암, 해인사 장경각 및 팔만대장경 등 3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우리나라 문화경쟁력의 잠재성을 입증해 보였었다.

우리문화유산의 70%는 불교문화재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계 또한 불교문화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단순한 문화재 관리와 보존수준의 틀을 깨고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수한 불교문화상품 개발과 불교문화 경쟁력 배양에 힘써야 할 때다.

아무리 많은 문화재도 적극적으로 세계인에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땅위에 굴러다니는 무의미한 돌조각이나 다를바가 없다.

이정섭·장미화·김형곤씨 등 불자연예인

케이블TV 요리프로 '점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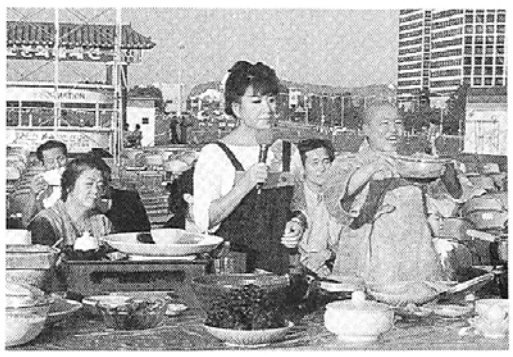
'불자연예인들은 요리도 잘한다?' 불교TV와 여성전문채널인 GTV, 홈쇼핑전문채널인 하이쇼핑 등 3개의 케이블TV에서 방송되고 있는 요리프로그램을 불자연예인들이 점령하고 있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불교TV '푸른맛 푸른요리(금, 토 낮 1시 25분)'는 숙련된 조교인 불자가수 장미화씨가 비구니 선재스님과 함께 사찰요리의 비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푸른맛 푸른요리는 제목 그대로 무공해 야채와 산나물을 인공향료와 화학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천연양념으로 음식의 담백한 맛을 그대로 화면에 옮겨내는 불교TV의 인기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여성보다도 더 여성다운 불자탤런트 이정섭씨가 진행하는 GTV의 '이정섭 요리쇼(월~수 밤 8시)'는 토크쇼 요리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의 프로그램. 이 프로에서 이씨는 '영화속의 요리', '나의 입맛', '이정섭에 요리센스' 등 다양한 코너 진행으로 요리솜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관과 연기생활의 에피소드 등을 잘근잘근 씹는 듯한 입담으로 솔직담백하게 얘기하고 있다.

후발주자로 불자요리사 군단에 진입한 불자개그맨 김형곤씨도 지난 11일부터 홈쇼핑전문 케이블채널 하이쇼핑의 '김형곤의 요리특급(토요일 오후 4시)'을 통해 앞치마를 입고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요리솜씨를 한껏 뽐내고 있다.

이들 요리프로그램의 주방장으로 자리잡은 불자연예인들은 맛깔스러운 음식솜씨가 재치있는 말솜씨 못지않다는 후문이다. 〈은〉



◇천연무공해 음식조리법으로 건강의 소중함까지 되새겨주는 불교TV의 '푸른맛 푸른요리'.

황토와 약쑥의 신비하고도 뛰어난 약성성분이 내열탕기와 황토좌대에서 발생되는 원적외선 열과 함께 뜨거운 수증기로 합쳐져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방출되게 함으로써 인체 조직파괴 없이 피공(皮孔)에 가장 효율적으로 침투하여 약리작용을 일으키도록 구조가 설계된 …

가정용 전통 황토 쑥 좌욕기

⊙ 전통 황토·쑥좌욕기는 좌욕기능외에 다용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좌욕효능

● 여성의 온갖 자궁병질환 및 변비, 치질 배군살등
● 남성의 전립선 질환 및 정력감퇴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등
〈1日 20분 30분, 좌욕을 하십시요〉

〈2〉 미용효능

●얼굴피부속 노폐물제거피부가 뽀얗게 됨
●피부노화방지 회복 재생
●피부탄력유지 윤택뛰어난 피부 맛사지 효과
●기미 여드름 검버섯등의 예방 및 제거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폐질환 두통염등
〈1日10분~15분 얼굴피부뽐질을 하십시오〉

〈황토로 만든 도자기 좌대〉
· 실용신안등록원 제96-23062호
· 의장등록출원 제96-16268호

●규격 : 높이 27cm×직경 33cm
●전기를 사용치 않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전자파를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강화약쑥 100알분 +황토가루 100알분 포함
●좌욕기 사용시 사진과 같은 침대를 이용하시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전통 황토·쑥 좌욕기는 현재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그 효능을 인정하여 주위에 적극 권하는 현대인의 가정필수품입니다.

보급가
전통 황토·쑥 좌욕기 : ₩ 270,000
침 대 (별도선택사양) : ₩ 90,000

⊙ 전통 황토·쑥좌욕기를 사용시 질병치료에 탁월한 치유효능이 있다는 근거는?

●「동의보감 탕액편권3」「본초강목」「향약집성방」「신해경」 등의 옛의서에 황토와 약쑥의 탁월한 질병치료 작용과 효능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씌여있는 기록과 단군이래 수천년동안 선조들이 황토와 약쑥을 이용하여 온갖 질병을 치료해온 경험으로 축적해 놓은 민간요법을 근거한 것으로, 황토와 약쑥이 인체에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황토가루와 약쑥을 염분(소금)과 함께 펄펄 끓여서 황토좌대 안에 넣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로 아픈부위를 집중적으로 쬐면 아래와 같은 질병치료에 큰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뜨거운 증기 찜질효능 〈각 질환 부위별 치료방법 아픈곳을 좌대위 구멍에 대고 찜질〉

①〈허리요통 척추질환 디스크〉

②〈어깨 목 디스크 통증 근육뭉침 결림대 담등의 질환〉

③〈말초신경통 마비 시력증상 힘줄 늘어남 근육통 티빙상〉

④〈다리 무릎 관절염 신경통〉

⑤〈복부냉증 긴기능질환〉

⑥〈손 발바닥 무좀 습진 피부각질 수족냉증질환〉

※ 체험치료사례모음 : 본제품을 사용하시어 효과를 보신분들께서는 본회로 치료사례를 보내주시면 1년분 약쑥과 황토가루를 보내드립니다.(주소, 성명, 전화번호, 질병종류, 치료기간 기록)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자매품

"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02) 강남 : 553-0261~2 송 파 : 417-8922 강북 : 902-2430 종 로 : 747-7033 성북 : 942-6430 영등포 : 782-6080 반포 : 597-7581
경기지역 : 평택 : (0333)856-6856 분당 : (0347)66-0049 용인 : (0335)36-4294 과천 : (02)503-9352
부산(051) : 부산진구 : 803-0108 연제구 : 864-2900 해운대구 : 702-2621
대구(053) 남구 : 474-2828 달서구 : 635-9734
대전(042) 중구 : 222-4936 서 구 : 534-4211 동구 : 253-6446 둔 산 : 487-7245
경남지역 마산 : (0551)23-9016 김해 : (0525)24-4871 진주 : (0591)43-4655
울산 : (0522)74-7536 울산중구 : (0522)93-1973 울주구 : (0522)85-1284
경북지역 포항 : (0562)82-3155~6 안동 : (0571)53-0229
광주(062) 동구 : 228-8544 서구 : 523-1540
강원도 강릉 : (0391)645-2117
충남지역 공주 : (0416)856-6856 예산 : (0458)33-3208 서산 : (0455)63-0457 아산 : (0418)43-3510
충북지역 청 주 : (0431)273-2684 제 천 : (0443)46-3023
제주도(064) 제주시 : 22-3324